

草地造成에 관한 林學徒의 杞憂

高麗大學校 大學院 林學科

尹 光 培

最近 農水産部에서 發表한 山地草地開發 10 年計劃은 林學을 專功하고 있는 學生으로서 念慮되는 점이 많기에 略述하고자 한다. 이 計劃은 山地를 食糧生産地로 轉換시키는데 그 意義가 있고 國土綜合開發計劃의 테두리 안에서 山地開發을 촉진 複合營農으로 肉類의 自給度를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農水産部는 說明하고 있다. 우리는 제 1차 治山綠化計劃을 수행하여 이제 겨우 國土에다 푸르름의 색깔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 계획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1차 治山綠化計劃은 4年 앞당겨져서 이룩되었다. 이제 제 2차 治山綠化計劃으로 用材林 生産과 經濟林 團地 및 山地의 資源化를 시도하려는 이때 林地를 草地로 轉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山林 荒廢化 時代로 되돌아 가려는 것이 아닌가 憂慮된다. 지난날 60年代 初만 하더라도 해마다 여름만 되면 洪水와 물난리 산사태 등 얼마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많았는가. 우리나라 天災害上 가장 被害가 심했던 1959年 사라호 태풍 때 그 많은 死傷者와 災害 亂民들 및 財産上의 損害 등은 森林의 11가지 國土 保安林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森林이 供水防止 機能과 水源涵養의 機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필자는 지난 11月 19日 日本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지난 7月의 나가사키縣의 集中豪雨 被害地域을 볼 수 있었다. 지난 7月 24日 日本 나가사키(長崎) 地方에서는 3時間 동안의 集中豪雨로 300여 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하고 財産上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다. 7月 25日 宇朝日新聞의 社說은 "世界의 先進國이라고 自處하는 우리가 3時間의 集中豪雨로 이같은 慘狀을 겪은 것은 羞取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며 무분별한 國土開發과 開墾, 自然의 힘을 輕視하는 風土에 대해 警鐘을 울리는 글을 실었다.

草地造成計劃의 內容은 一般草地, 共同草地 및 團地草地로 分類할 수 있겠다. 이중 300 ha 以上の 團地草地를 18個所 開發할 計劃으로 國立公園, 道立公

園 地域이라도 傾斜度 15°以上 立木度 10% 以上인 경우라도 草地로 造成할 수 있다고 규제를 大폭 緩和한다는 것이다. 國立公園, 道立公園 등의 休養林은 國民 모두 公共의 厚生福利의 機能을 발휘하고 있는 森林이다. 이 곳이 단지 肉類消費의 自給化만을 위한 장소 즉 草地로 轉用된다면 많은 國民의 休養의 場所는 어디에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現代化되는 社會의 特徵인 單純化, 劃一化, 都市化 속에서의 小市民의 휴식처는 어디서 구해야 할 것인가.

의 特徵인 單純化, 劃一化, 都市化 속에서의 小市民의 휴식처는 어디서 구해야 할 것인가.

또 都市計劃法으로 묶여있는 green belt 地域에까지도 草地造成을 許用한다면 이것은 土地投機까지 助長할 근거가 있다. 여기서 眞正한 草地開發事業의 目的을 살펴보자. 草地開發事業의 目的은 草食家畜을 飼育하기 위하여 牧草地를 造成 利用하든지 또는 野草地를 개량 이용하는데 있다. 草地開發事業은 초식가축의 飼養款物을 생산할 야초지 또는 牧野地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야초지에는 自生하는 우량의 牧草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牧野의 植生構成과 生育狀態를 보면 一般의으로 방목지 또는 채초지를 불문하고 化분과 목초가 많으며 중요한 蛋白質給源인 콩과초류의 혼생이 極히 적다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콩과 초류는 化분과 초류와 같이 無性繁殖을 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牧野土壤은 酸性이 강하고 石灰·磷酸 등이 부족하여 콩과 초종이 生育에 부적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자연초지의 土壤은 오랫동안 걸친 利用과 氣象·地形·基岩등 環境 조건에 의해서 서서히 나쁜 방향으로 變化되어 土壤酸度가 강하며 石灰·苦土 및 有效態磷酸의 含量이 적고, 土壤浸蝕을 받은 곳에서는 表土層이 얇거나 거의 없으며, 風化가 잘 되지 않은 모래가 대부분이고 有機物의 含量도 적은 곳이 많다. 빠른 畜産振興을 위해서는 草地造成에 앞서 全國의 草地實態調査가

先行되어야 우리나라 野草地의 生産性과 牧草地 造成의 可能性이 밝혀질 것이라 思料된다. 牧草生産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점을 飼料資源 핸드북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土壤은 화강암과 편마암을 母材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牧野地 土壤의 平均酸度가 5.3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有機質 含量도 평균 2.22%로 낮은 편이다. 또 土壤中 有效磷酸 含量도 개간지나 비개간지를 막론하고 상당히 낮고 특히 이것은 일반 作物보다 生育에 磷酸을 많이 필요로 하는 牧草栽培에 있어 가장 不利한 條件이라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氣候의 특색은 代表的인 아시아 문순 기후대로 여름철은 짧고 더운데다 비가 많고 겨울철은 춥고 비가 적고 乾燥하다. 그러나 牧草는 北方型 목초의 適溫이 15~21°C이며 25°C 以上이 며칠만 계속되어도 生育이 中止되고 夏枯現象이 일어나며 南方型 牧草는 10°C 以上の 기온이 되어야 生育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더위와 추위와의 차이가 심하고 年中 강우량이 고르지 않아 牧草生産에 상당히 不利하다고 할 수 있다.

技術的인 問題로는 草地의 관리기술 不足으로 클로

버 優占現象을 일으켜 草地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低生産性 草地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政策的인 問題로는 草地에 대한 技術的인 지도를 전달하는 體制가 방임상태에 있고 정책지원 역시 부족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種子의 生産과 購入問題, 牧畜業者의 資質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牧草生産을 抑制시키는 要因이라 하겠다.

이를 解決하는 방안으로 草地와 병행하여 牧草가 자라지 않는 여름철에 利用할 수 있는 靑刈作物의 短期輪作이 필요하다. 이같이 우리의 地理的 環境과 諸般要素가 草地造成에 적합치 않고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 租稅減免의 혜택까지 주면서 酪農業을 지원했는데에도 불구하고 大單位 牧場이 成功하지 못했다. 草地造成에 앞서 先決되어야 할 問題를 解決한 후에 林地를 開發해야하지 않겠는가. 모처럼 國民의 財力과 努力으로 가꾸고 있는 우리의 國土를 한 순간의 試行錯誤로 다시 우리의 森林을 헐벗게 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慎重하고도 顯重하게 熟考한 後, 合理的인 計劃이 다시 樹立되기를 기대한다.